

# 보성군, 과수 화상병 사전예찰 및 사전방제 총력

### 사과·배 등에 치명적...전체 과수원 폐원해야 69농가(55.7ha) 대상 방제 약제 12일까지 공급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현주)는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예찰과 방제약제 공급을 통한 사전예방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과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증상으로 한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보성군은 사과·배 농장을 운영하는 69농가(55.7ha)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오는 12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배 과수원의 경우, 꽃눈이 트기 전

인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사과 과수원은 싹이 트기 전인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급된 약제를 이용해 1차 방제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과중별 꽃이 80% 수준으로 개화되었을 때 5일 사이에 2차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은 약제방제와 함께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소독을 수시로 진행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과수화상병과 동시에 공급되는 핵과류 자두곰보병 예방 약제에 대해서도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택순기자

### 고흥군 홈페이지, 중소기업 콘텐츠 개설 예정 '눈길'

고흥군이 관내 기업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콘텐츠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기업지원 소식 △중소기업 현황 △공장 설립 안내 △기업경영 애로상담 △관련사이트 등 총 5개 메뉴로 구성된다. 군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관한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공지사항에서 사업 공고문을 직접 검색하는 등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흥군은 이번 콘텐츠 개설로 기업지원 소식창구가 일원화되어 기업인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광양시, 인서지구·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 용역 추진

### 인간·자연 공존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 인서지구 및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

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30만 자족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다.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광양읍 인동·인서리 전남도립미술관 하단부

일대 626,000㎡ 부지에 1,134억 원을 투입해 2,751세대 6,327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도이동 대화마을 일대 287,000㎡ 부지에 495억 원을 투입해 2,562세대 6,149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조사설계 용역을 착공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각종 영향평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 12월까지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개발 추진으로 품격 있는 도시정주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 내 손으로 시정 참여 활성화 조례 만든다

### 순천시, 사전교육·육구 조사·공론화 등 거쳐 7월 중 조례안 확정

순천시는 지난 5일부터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주도하여 만드는 '(가칭)순천시 직접민주주의 활성화와 조례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2월 여성, 청년·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36명을 시민추진단으로 공개 모집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첫 상견례에서는 민주주의 기술훈과 이창림 대표를 초청해 '내 손으로 만드는 순천시 민주주의 활성화 조례'라는 주제로 조례제정에 생소한 시민들이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조례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시민추진단으로 참여한 시민들에 따르면, 일상 속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공유와 조례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가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시민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순수 시민 주도형 직접민주주의 제1호 조례가 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추진단은 ▲조례 총칙, ▲시민참여제도, ▲참여 활성화, ▲시민협의체 등의 주요 부분별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욕구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별 토의,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금년 7월 중에는 '(가칭)순천시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여수시,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나서

### 12월까지 10개 업체 모집...네이버 쇼핑라이브 통해 온라인판촉

여수시가 지역 농수특산물 가공 판매업체의 '라이브커머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에 참여할 10개 업체를 모집해 국내 대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지역대표 농수특산물을 실시간 판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채널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젊은층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 판매방식이다. 신청자격은 남도장터(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입점을 희망하는 농수특산물 가공판매업체로, 오는 12일까지 신청

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특산물 육성성과 방문접수하면 된다. 1개 업체당 3백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참여업체에서 60만 원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는 '라이브커머스' 진출 지원으로 지역업체의 온라인 시장 경험을 쌓고 실질적인 매출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